

産業構造調整과 地域勞動市場의 變化*

— 부산의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

林 正 德**

<目 次>

- | | |
|------------------------|--------------------------|
| I. 序論 | IV. 釜山地域 勞動市場의 變化 |
| II. 産業構造調整과 地域勞動市場의 變化 | V. 釜山の 신발산업을 경우로 한 實證分析 |
| III. 産業 및 企業의 對應 | VI. 要約 및 結論 |

I. 序 論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과정은 산업구조변화의 과정이다. 산업구조가 효율적으로 변하면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성장하게 되고 산업구조가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restructuring) 못하면 국민경제나 해당지역경제는 침체하거나 정체한다.

개별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산업내의 개별기업들이 시장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그 산업은 쇠퇴하거나 정체하게 된다. 특히 모든 산업들에 대한 노동시장은 같은 공급원을 가지므로 개별산업의 성과는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와 절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지역경제의 경우에는 지역내의 산업들이 성장하고 있으면 지역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지역내의 산업들이 낙후되면 지역경제도 같은 영

* 본 논문은 1991년도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향을 받는다. 따라서 지역발전 혹은 지역성장은 지역내 산업의 재구성 혹은 조정과정과 같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개별산업의 성패는 제품시장에서의 수요변화와 요소시장에서의 요소공급조건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같은 조건에서 제품수요가 증가하지 않거나 수요가 정체되어 있으면 해당산업은 산업수명주기설에서 구분하는 성숙 내지 사양단계에 위치한다. 또한 수요조건이 변하지 않더라도 요소공급시장에서 공급조건이 변하면 경쟁력과 효율성을 잃어서 그 산업은 쇠퇴과정을 밟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앞의 두가지에 함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80년대 후반이후의 노동시장여건변화는 공급측면에서의 경쟁력약화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나타낸다.

그런데 산업구조의 변화나 구조조정은 대체로 거시적인 차원과 관점에서 사후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각 산업과 그 산업내의 기업들은 끊임없이 경쟁과 시장조건변화에 동태적으로 반응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가 산업구조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마살이 말한 숲과 숲속의 나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이다. 숲 전체의 색깔이 바뀌어 버릴 수도 있고 樹種이 사실상 달라진 숲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숲속에 있는 개별나무들의 변화의 총합적인 결과에 의한 것이다.

본 연구는 산업구조재조정을 지역차원과 개별기업차원, 그리고 지역노동시장과의 관계에서 분석한 것이다. 지역의 주종산업의 성장여부가 지역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주종산업의 구조조정 과정과 결과가 지역경제의 앞날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지역노동시장조건이 해당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 및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과 산업은 부산의 신발산업이다. 부산이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신발산업이 부산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가지는 주종산업이므로 부산의 신발산업의 구조조정과정을 미시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부산의 노동시장조건이 전국의 그것이나 다른 대도시와도 다르다면 그런 특수조건이 신발산업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역으로 부산의 주종산업인 신발산업의 위축이 지역노동시장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인과관계(causality)의 방향논의도 본 연구의 관심대상이다.

신발산업내의 개별기업들은 구조조정과정으로 크게 나누어서 省力化, 多樣化, 多角化 등의 산업내에서의 효율화를 추구하거나 再立地 혹은 移轉을 시도하거나 규모축소 혹은 퇴출 등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들이 이론적 또는 논리적으로 먼저 고려되고 다음에는 기업체표본조사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논의된다. 실증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변화가 먼저 분석되고 부산지역노동시장과 신발산업과의 관계가 설명된다. 신발의 해외수요추이, 한국제품의 수요추이와 가격변동 등 산

업자체에 관한 부분은 지면관계로 본 논문에 수록하지 않는다.

실증분석은 아시아 NICs 4개국 학자들이 미국 동서센터의 주관하에 실시하는 산업구조조정 비교연구를 위해 작성한 설문조사표에 의한 것이다. 본 조사에 의한 심층분석결과는 다른 기회에 발표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조사결과는 지면절약을 위해서 表로는 편제하지 않았으며 개별 문항중심보다는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요약과 결론을 마지막에 수록하였다.

II. 産業構造再調整과 地域勞動市場의 變化

1. 理論的 考慮

산업구조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두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제품의 국내수요나 해외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업의 경제내에서의 상대적 비중은 증가하게 되고 해당 산업은 성장하게 되거나 확장된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증가율이나 증가속도이다. 제품의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거나 그 증가속도가 빨라질 때는 해당산업은 유망산업이 되어 그 산업으로의 진입이 일어나고 그 산업의 상대적 비중이 올라간다.

제품의 수요증가가 빠르지 않거나 제자리에 머물게 되면 해당산업은 성숙산업이나 사양산업화되게 된다. 이 경우 수요의 非증가 내지 감소가 해당산업이나 산업내의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학에서의 가속도원리와 유사하다. 개별기업이 다양화, 다각화를 동태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제품수요변동으로부터의 위험분산이라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요증가의 둔화는 확대되는 경제규모에서의 상대적 위축과 이윤율저하를 초래한다.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일어나지 않는 큰 이유는 매몰비용(sunk cost)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존재 때문이다.

공급측면에서의 파악은 생산능력 및 생산비용과 주로 관련된다. 생산요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요소비용이 상승하면 해당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 이 경우는 공간적 개념이 중요한데 개방경제의 여부가 그 정도를 좌우한다. 一國經濟의 경우에는 요소비용상승이 전산업에 똑같이 해당되므로 개별기업이나 産業에는 특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개방경제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생산원가가 상승한 산업이나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수요측면에서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급측면에서의 변동도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와 마찬가지로이다. 경쟁력이 저하된 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며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제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공급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의 정도가 약화되거나 일정기간동안 무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 신발산업이 좋은 경우가 되는데 해외신발수요가 80년대말 까지 상당히 빠르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구조변화가 87년이후 급격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 즉, 해외수요가 왕성할 때에는 요소시장에서의 문제가 노출되지 않고 상당기간동안 잠복할 수 있다는 것이 실례를 통해 증명되었다.

위에서 고찰한 변화는 시장을 통한 시장원리에 의한 것이다. 산업구조변화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시도하면 산업구조는 변할 수 밖에 없다. “일본과 아시아 NICs의 빠른 경제성장이 정부의 강력한 산업정책의 결과이다”라는 평가가 국내외의 학자들에 의해 특별한 異論없이 제기되었다. 최근의 논점은 한국의 경우 국제분업에서 비교우위에 의한 특화라는 국제무역원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이나 요소가격 및 정부의 산업정책에 의해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²⁾ 일본과 아시아 NICs의 경제발전에서 정부의 역할이 지대한 것이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동안에는 체질화된 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여와 의존을 탈피하는 과정과 방법이 현실적인 문제로서 대두된다.

예를 들면 신발산업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과거와 같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여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예를 들면 중화학공업 합리화조치-기준에 따르면 공정성과 기획의 균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되고 지역경제에 負의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구조가 정부의 산업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結者解之의 원칙을 적용하면 정부가 간여해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의 자율화원칙에 어긋나고 경제의 체질개선이나 개혁은 불가능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산업정책의 영향이나 효과측정 및 앞으로의 방향은 본 논문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2)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Amsden, *Asia's Next Giant*, Oxford University Press, 1989과 M. Weber, “Enter the Dragon, Lessons for Australia from NE Asia”, Working Paper 92-2, Monash University, 1992를 들 수 있는데 Weber는 한국과 같은 산업정책을 일반화하여 Australia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것이다. 확인할 수 있는 한가지 사실은 산업정책이 구조조정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需要에 의한 産業構造 變化

제품시장에서의 수요변화는 산업구조변화의 주원인이 된다. 이 수요변화는 주로 상대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대체상품의 개발, 신제품의 등장 등에 따르는 시장내에서의 제품의 상대적 지위에 따라 변화된다. 현재까지의 설명중 설득력있는 것은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가설로서 시장규모의 확대와 시장내의 상품구조의 변화가 동태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산업구조도 달라지게 된다. 이기에서 국내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됨은 물론이다.

제품수명주기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이 기술조건의 변화이다. 기술개발이 한 제품을 단기간내에 진부화(obsolete)시키는 수가 있다. 전자제품이나 컴퓨터기기 관련산업에서 제품수명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때에는 신제품의 대체탄력성이 매우 커서 기존제품은 쓸모없게 되어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탈락하거나 도태된다. 소비자의 기호변화도 대체재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으면 단기간에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기술개발은 상품의 少量多品種生産에 의한 개성화나 팻션화 등을 포괄하여 수요변화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러나 기술개발자체는 수요보다 공급측면에 속하여 생산비용을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수요변화의 다른 중요한 요인은 소득효과이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추가지출은 기존 소비구조와는 다른 유형을 띄게되며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나 용역이 선호된다. 소득이 높은 나라일 수록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주로 이 소득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비스의 상대가격이 공산품이나 농산품보다 높은 이유도 서비스의 소득탄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구조의 장기적 변화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수요의 변화는 총수요관리, 무역정책 등을 포함하는 산업정책에 의해서도 유도된다. 개방화의 정도에 따라서 국내수요가 변화하는 것은 최근 국내농산물시장의 中國産 유입에 따르는 변화의 예에서 잘 나타난다. 금융정책의 변화에 따르는 신용규제 등도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3. 地域勞動市場의 變化

산업구조변화에 영향을 주는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은 생산요소시장의 변화이다. 자본, 기술, 원자재, 노동 등의 요소 중에서 다른 어느것보다 국가나 지역특수적인 것이 노동이다. 개방의 정도가 강할 수록 자본, 기술이나 원자재 등은 국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요소가격이 상대적으로 평준화될 수 있으나 노동력은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단기간에 또한 직접적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공급측의 주된 변화요인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규모변화, 노동력구성의 변화, 노동이동 등은 노동공급의 양과 아울러 가격(임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지난 60년대 이후 거의 매 10년마다 구조와 성격이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³⁾ 산업구조의 변화가 지역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산업구조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리고 두가지 요소가 상호 영향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80년대 후반부터의 한국노동시장 구조변화의 특징으로 여성화, 고학력화, 고령화를 들 수 있다.⁴⁾ 이런 요인들이 노동력의 질과 양 그리고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자연히 산업구조 조정의 시장적 원인을 제공한다. 인구증가나 경제활동참가율변화에 따라 노동력의 절대 규모는 증가하더라도 노동력의 산업간, 지역간 배분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중요한 결정요인이 지역산업구조의 변화이다. 한국내에 있는 각 지역은 출생율이 일정하고 해외유입이 없다고 가정하면 노동력공급의 변동은 노동력이동(migration)에 의해서 좌우된다. 각 지역의 산업분포(industrial mix)가 다르고 지역의 생활조건이 다르므로 각 지역은 상당히 다른 성격의 노동시장을 가질 수 있다. 같은 지역내에서도 산업간의 노동력이동이 일어나면 노동시장의 성격이 변하게 된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간 노동력이동은 각 산업의 노동력공급조건을 변하게 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공급규모가 일정하더라도 노동의 입,이직률(turnover)이 변하면 노동공급 조건은 달라진다. 노동의 입,이직율은 산업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⁵⁾

3) 이 구분은 자의적인 것으로 더 세밀한 검증과 분석을 필요로 한다. 시대구분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전까지의 시점, 노동력 무한공급이 끝나는 전환점(turning point)인 70년대 중반, 3저와 87년 민주화 선언으로 이어지는 80년대 중반 등으로 할 수 있다.

4) 어 수봉, 노동시장변화와 정책과제, 노동연구원, 1991.

5) 어 수봉, "제조업 인력이탈의 원인과 대책", 노동동향분석, 노동연구원 1992 3/4분기.

4. 産業構造變化와 勞動市場變化의 因果關係

산업구조변화는 노동시장에 변화를 초래한다. 한국이 산업화초기에 농촌으로부터의 무제한적인 노동력공급을 받아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그 한 예이다. 또한 임금상승과 노동력공급부족으로 인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급격하게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여 그 산업자체가 위축되거나 도태되는 것이 반대의 예가 된다. 여기서 관심의 대상은 兩 요인간의 인과관계이다. 만약 인과관계가 일방적으로 작용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게 된다. 만약 兩 요인이 交互作用(interact)을 하게 되면 원인의 분석과 영향력의 측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兩 요인이 서로 交互作用을 하는 중에 80년대 중반까지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의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80년대 후반이후에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산업구조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수요조건 또는 기술개발의 측면이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개방경제체제에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노동공급조건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측면때문에 공급조건이 큰 영향력을 부각시킨 것이다. 동시에 이 경우 기술개발은 공급조건에 속하므로 공급측면으로부터의 인과관계를 강조하게 된다.

논의의 범위를 국민경제로부터 지역경제로 좁히면 분석의 논점은 보다 명확해진다. 예를 들면 부산의 지역경제에서는 신발과 섬유업의 두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생산과 고용 양면에서 주종산업인데 이 산업은 제품수명주기의 측면이나 수요의 측면에서도 성장산업이 아니고 경쟁력을 전제로 한 공급측면에서도 경쟁력상실산업이다. 수요측면은 지역이나 해당산업이 통제할 여지가 거의 없고 공급측면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기술개발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지역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제4장에서 하게 된다.

Ⅲ. 産業 및 企業의 對應

1. 概 觀

제품수요변화와 제품생산조건변화에 대해 해당산업이나 산업내의 기업은 어떤 형태로

든지 대응한다. 어떻게, 또한 어느 정도로 대응하는가가 이 경우 관심의 대상이다. 이런 과정에서의 정부나 산업정책의 역할도 분석해야 할 부분이다. 산업이나 기업의 대응 정도에 따라서 해당산업의 실적(performance)이 나타나고 이 결과의 집적이 산업구조 혹은 구조조정의 과정과 결과를 결정한다. 각 개별산업의 실적을 합계하면 국민경제에서의 산업구조변화가 되고 지역내의 산업활동변화를 합계하면 지역산업구조변화 나아가서 지역경제의 변화방향과 성장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최근의 한국산업변화는 노동시장조건변화나 기술개발과 같은 공급측면으로부터 더 강한 영향을 받고 있고 지역경제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분명하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조건변화에 따라서 기업이나 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유형화하여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부산지역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현황과 그 주종산업인 신발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수요와 공급조건 변화에 대한 기업과 산업의 대응현황과 방향을 파악할 수 있으면 신발산업의 장래에 대한 방향 제시가 가능해지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감안한 부산산업구조의 조정방향과 내용도 보다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다.

2. 企業 및 産業의 對應類型

산업환경변화에 따라 산업이나 개별기업은 여러가지로 대응한다. 대응의 목적과 방향은 살아남는 것, 기회를 포착하여 성장하는 것, 포기하는 방향으로의 이윤극대화 혹은 손실최소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魚秀鳳(1992)은 이 과정을 효율증진적 조정, 기술혁신적 조정, 방향전환적 조정 등 3가지로 제시한다. 앞의 2가지 조정은 생산기술이나 방법의 변경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의미하고 방향전환적 조정은 퇴출이나 해외이전 등의 조정을 의미한다. 보다 직접적인 표현에 의해 유형화를 시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生産의 效率化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술개발은 노동대체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생산비용이 증가하더라도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면 경쟁력은 유효하다. 팻션화나 유연생산시스템(FMS) 등이 그 방법이 된다. 산업조직의 효율화도 마찬가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1) 自動化

생산기술을 자동화하는 것이 보편적 방법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종래에 사용하던 규모의 경제를 위한 생산방법과는 구별된다. 신발과 같이 공정상의 특성때문에 자동화가 어렵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다.

(2) 多角化, 多樣化

같은 제품을 다양화하거나 고부가가치화하는 방법이나 품목다각화나 다양화를 시도하는 경우이다. 품목다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사실상의 업종전환의 상태까지 이르는 수가 많다. 럭키나 제일제당과 같은 재벌의 母기업의 경우가 전형적인 예가 된다. 그러나 신발과 같이 생산기술이나 조건이 다양화나 다각화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3) 技術開發과 革新

수요의 다양화, 팻션화, 개별화에 맞추어 생산기술이나 공정을 개선하거나 혁신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술개발이다. FMS나 JIT 등의 생산관리에서 CAD,CAM 등의 기술응용등의 새로운 기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기술개발이나 혁신과 고용과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정의되지 않고 있으나 기존기업이 노동절약적인 기술혁신으로 현재의 고용규모를 감소시킨다는 결정적 보고는 없다.

2) 再立地, 域外移轉

생산요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地價가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임금이 낮은 海外로 시설이나 자본을 입지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해외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도 같은 범주에 넣어 생각할 수 있다.

(1) 再立地(relocation)

공장시설은 처음 입지할 때에 지역(도시)의 주변부나 교외에 입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므로 일정기간후면 공장이 도심내에 위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현실적인 면에서나 법적인 면에서 공장이 도심에 위치하는 것에 제약이 많아지고 또 그동안 地價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역외로 시설을 이전하거나 신투자를 하면 자본이득과 아울러 다양화, 다각화등의 업종전환까지 실현할 수 있다.

(2) 海外移轉

생산비절감이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생산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취하는 방법이다. 국민경제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양상은 일률적이지 않고 복합적이다. 자본은 매물비용화할 수 밖에 없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이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활동 규모를 유지할 수도 있다. 지역노동시장에는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고령-

숙련노동자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해당기업이 시설이나 투자를 전부 해외로 이전하면 노동시장과 파생수요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토지이용상의 변화도 동시에 일어난다.

(3) 外國人勞動者의 雇傭

합법성의 여부를 떠나 임금이 싸고 단위노동비용이 낮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이 일정수준을 넘는다면 그 효과는 해외이전과 같은 방향일 수 있다.

3) 規模縮小 및 退出

제품 및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기업규모를 줄이는 것이 적극적인 대응방법의 하나이다. 이것은 업종전환이나 퇴출의 前단계 조치일 수도 있다. 기업이 자발적이든 혹은 비자발적이든 시장으로부터 퇴출하는 것도 구조조정의 한 방법이다. 정부의 산업정책도 사양산업의 경우 퇴출을 유도하는 방향을 취한다.

(1) 規模縮小

불황때나 경쟁력이 약화될 때 기업이 취하는 전략이 규모의 축소이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지 않을 때는 정도가 더 강할 수 있다.

(2) 非自發的 退出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가 된다. 산업전체로 보아서 진입기업의 수와 규모가 퇴출기업의 수와 규모보다 크지 않으면 해당산업의 비중은 축소된다.

(3) 自發的 退出

산업에 대한 장래의 전망을 고려하여 시장으로부터 스스로 퇴출할 수도 있다. 기업이 경영난을 이유로 휴폐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轉業을 위한 퇴출의 경우도 있다. 제조업자들이 서비스업종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나 성숙산업으로 다양화하는 것도 업종전환으로 볼 수 있다.

4) 勞動市場과의 關係

위에서 유형화한 기업과 산업의 유형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전제로 하여 미시적 대응이 산업구조변화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정리해 본 것이다. 그러나 사후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나 구조조정의 과정이 끊임없이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범위를 지역노동시장으로 한정하면 산업구조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의 성숙산업이나 한계기업의 퇴출이나 노동

력의 이동시에 노동력이 같은 산업내에서 이동하거나 머무르는 것과 다른 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후적인 산업구조변화와 큰 관계를 가지는데 이것은 각 산업의 노동수요, 구체적으로는 임금과 같은 노동조건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한 산업 혹은 업종의 상대적 위축과 다른 산업(업종)의 상대적 성장은 지역내의 노동력의 산업간 배분뿐만 아니라 역내외로의 이동에도 영향을 미쳐 노동시장의 규모와 구조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지역산업구조가 미국의 철강도시와 같이 단일구성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앞의 관계가 악순환적인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IV. 釜山地域勞動市場의 變化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부산지역의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변화가 전국 노동시장의 변화추세와 다른 점이 있는가의 여부와 다르다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혀내고 이러한 변화들이 지역산업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勞動市場規模

국민경제의 경우 취업구조는 달라지지만 노동시장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인구수의 증가,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등에 의해 절대적인 노동력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1) 人口構造의 變化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시장의 배경이 되는 지역인구규모가 정체되고 있는 점이다. 1989년 이후 부산의 인구는 절대수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상태에 있으며 인구변화의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인 인구의 순전입이 負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대도시의 노동력공급은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와 노동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으므로 인

구의 純轉出은 노동시장규모자체를 축소시키며 노동력공급의 절대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의 상태는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인구이동효과를 상쇄하고도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⁶⁾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이것이 노동력공급구성에 중대한 변화를 주고 있다. 부산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최근 전국 평균수준(90년 60.0%)에 가까워지는 추세로서 더 이상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으리라고는 전망되지 않는다.

〈표 1〉 釜山의 人口推移

(단위:명, %)

	인구수			전기 대비 증가율	인구동태 전기대비 평균증가율	전입 (A)	전출 (B)	A-B
	계	남	여					
1970	1842259	905351	936908	29.8	5.3	448577	376059	72518
1975	2453173	1222153	1231020	33.2	5.9	805979	694445	111534
1980	3159766	1570367	1589399	28.8	5.2	904252	853118	51134
1985	3516807	1738871	177936	11.3	2.2	821207	807752	13455
1989	3857312	1916907	1940405	9.7	2.3	790991	797649	-6658
1990	3797566	1882991	1914575	-1.5	-1.5	761684	797544	-35860
1991	-	-	-	-	-	741748	777296	-35548

자료: 부산통계연보, 각년도, 부산시

앞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일정수준으로 안정화된다는 전제하에서 부산의 노동시장규모는 순전입인구규모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 추세로 보아서는 인구이동은 순전출이 계속되리라고 보아지므로 부산노동시장규모는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경제구조나 소비, 노동수급 등이 빠른 인구증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구의 완만한 증가나 감소추세는 변화에 따른 조정에 문제를 일으키며 디플레이션時의 경제체질과 마찬가지로 減速度反應을 일으킬 수 있다.

2) 就業規模

부산지역 취업자규모 및 산업별 취업자 구성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에 나타난 몇 가지 특성은 첫째, 부산지역 취업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

6) 부산의 경제활동인구는 '89, '90, '91년에 각각 1552천명, 1665천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7.7%, 58.1%, 59.5%이다.

〈표 2〉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전산업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1971	504(100.0)	22(4.4)	164(32.6)	317(63.0)
1977	789(100.0)	29(3.7)	352(44.6)	408(51.7)
1981	901(100.0)	45(5.0)	330(36.7)	525(58.3)
1989	1,512(100.0)	41(2.7)	588(38.9)	883(58.4)
1990	1,554(100.0)	30(1.9)	604(38.9)	920(59.2)
1991	1,610(100.0)	28(1.8)	601(37.3)	981(60.9)

자료: 부산시, 부산통계월보, 각월호
통계청, 지역통계년보, 각년도

는 것과 제조업의 취업자수가 91년부터 감소한 것이다.⁷⁾ 통계의 부정확을 감안하여 지금까지의 결과를 다시 종합, 정리하면 부산시의 취업자공급규모는 최근 정체상태에 있거나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종사자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종사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부산제조업 현황

(단위: 個社, 명, 백만원)

구분	전국			부산		
	사업체수	종업원수	부가가치액	사업체수	종업원수	부가가치액
1984	41,549	2,343,593	24,654,407	4,870	351,884	2,311,983
1985	44,037	2,437,997	26,736,623	5,198	368,117	2,474,322
1986	50,063	2,738,353	32,881,857	5,731	410,806	2,935,610
1987	54,389	3,001,332	40,569,398	6,231	430,858	3,362,214
1988	59,928	3,120,486	48,341,599	6,544	412,379	3,669,279
1989	65,684	3,093,418	54,958,672	6,853	383,379	3,997,618
1990	68,872	3,019,816	70,924,547	7,072	368,310	5,441,613

자료: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따라서 부산지역 노동시장은 그 공급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산업 또는 업종별로 공급상태가 달라져 있다. 공급상의 애로가 있는 제조업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에 공급

7) 산업통계는 이용시에 신중한 검토와 일관성 있는 사용을 필요로 한다. 많은 연구들이 산업통계를 잘못 이용하고 있거나 출처가 다른 통계를 혼용함으로써 말미암아 분석상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위의 취업자수의 경우에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이용하면 제조업종사자는 88년도부터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통계의 추세분석을 위해서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 부분에서는 전체취업자(공급규모)를 알기 위해서 부산통계연보에 보고된 부산시의 통계청 인구조사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상대가격(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생산성향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 밖에 없다.

3) 經濟活動人口의 構成

부산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에서 인구증가율이 둔화됨으로써 경제활동인구의 증가규모도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연령별, 성별 구성의 변화가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면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大都市의 성격을 반영하여 부산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구성은 전국의 구성에 비해 보다 젊은 양상이다. 즉 15세에서 50세까지는 구성비가 전국보다 높고 그 이상의 연령은 전국에 비해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나이인 15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구성은 부산이 전국보다 상당히 높다. 이 연령대의 구성비가 높은 이유는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재학하기 위한 域内外의 학생까지 포함하므로 모든 것이 노동시장과 직결될 수는 없다.

그러나 15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대 중에서 실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 즉 1984년에 15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대 경제활동참가 구성비는 전국이 17.0%임에 비해 부산은 20.6%에 달하고 있다. 그 구성비는 1989년에는 각각 12.7%와 15.9%에 달하여 전국인구의 老齡化 趨勢를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산의 구성비가 전국보다는 현저히 높은 상태이다. 다만 전국과 부산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것이 절대적 노동력공급규모 뿐만 아니라 신규노동력공급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현상은 성별구성비 비교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여성의 15세이상 24세까지의 인구구성은 1984년에 전국이 26.7%, 부산이 32.4%이며 1989년에는 각각 24.2%와 27.2%이다. 그런데 경제활동참가인구 구성비는 1984년에 전국이 25.9%, 부산이 38.4%이었다가 1989년에는 각각 19.8%와 27.3%로 변하고 있다. 자료가 1984년에서 시작되므로 그 이전의 내용은 파악할 수 없으나 이런 변화의 추이를 과거로 연장하면 차이가 더 뚜렷하리라고 추정된다.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에서 미혼여성노동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의 변화는 부산의 노동공급구조를 크게 변동시키는 원인이 된다. 즉 1984년과 1989년의 5년 사이에 부산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경제활동참가구성비가 11.1% 포인트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비율은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세 이상 49세까지의 경제활동참가 구성비가 전국보다 높은 것은 산업활동이 상대적으

로 활발한 대도시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본다. 또 이 연령대에서는 전국과의 구성비 격차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부산지역에 특수한 노동공급상황이 저연령층, 특히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가설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공통된 현상인지 아니면 부산에만 국한된 현상인지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2. 勞動移動(Migration)

노동시장의 절대적 규모와 함께 고려할 것은 노동력공급의 구성변화이다. 부산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은 그동안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전입노동력에 의존한 바가 크다. 또한 과거 부산의 인구증가는 전출보다 월등히 많은 전입인구에 의한 것이다. 그동안의 인구전,출입의 동태를 보면 전입에서 전출을 뺀 純轉入에 있어서 부산은 서울 및 경기도에는 負의 轉入(따라서 轉出)을 계속 기록하였고 여타의 지역에 대하여는 正의 純轉入을 가져 왔으며 전체적으로는 正의 純轉入이었다. 물론 이것은 주민등록의 변동에 의한 집계이므로 실제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순전출입의 위치가 바뀌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전입구조를 지역별로 보면 인근지역인 경남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다음으로 서울과 경북이 비슷한 수준이나 경북의 경우에는 85년 이후부터는 그 비중이 급격히 줄어 들고 있다. 또한 전남이 80년까지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85년 이후에는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중은 작지만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남을 제외한 이들 세지역은 부산의 노동력 공급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1980년에 이들 세지역으로 부터의 순전입은 28,672명으로 총순전입인구의 56%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1년에는 이들 세지역으로 부터의 순전입인구가 4,261명에 불과하였다.

전남북과 충남, 경북 등지가 부산의 노동집약적 산업인 제조업이나 기타 서비스업 등에 노동력공급의 주요원천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추이는 왜 부산의 노동공급에 애로가 발생하였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 현상은 경제활동인구의 성별, 연령별 분석에 의하면 더 확실하게 뒷받침된다.

인구 전,출입의 절대규모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1980년에 51만명 수준이던 총이동이 1991년에는 38만명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 그런데 부산으로부터의 전출인구감소보다 전입인구의 감소가 급격하여 1989년부터 反轉되는 현상을 보였는데 앞으로 이 추이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경제여

건의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표 4〉 부산유동인구의 전출입지역

	'80		전 입 지		'90		'91	
		%	'85	%		%		%
서울	29,202	10.4	27,318	12.1	22,005	11.9	20,097	2.7
대구	—	—	10,696	4.7	8,848	4.8	7,788	1.1
인천	—	—	3,475	1.5	3,400	1.9	3,124	0.4
광주	—	—	—	—	2,243	1.2	1,619	0.2
대전	—	—	—	—	1,945	1.0	1,909	0.3
경기	12,926	4.6	10,530	4.7	11,867	6.5	11,281	1.5
강원	8,732	3.1	6,392	2.8	5,590	3.0	5,096	0.7
충북	6,670	2.4	3,927	1.7	3,351	1.8	2,850	0.4
충남	8,552	3.0	5,571	2.5	3,157	1.7	2,569	0.3
전북	12,350	4.4	6,332	2.8	5,355	2.9	3,828	0.5
전남	28,727	10.2	21,111	9.4	13,803	7.5	11,981	1.6
경북	51,067	18.2	26,419	1.7	20,350	11.1	17,909	2.4
경남	114,379	40.7	98,126	3.5	79,341	43.1	78,080	10.5
제주	2,948	1.0	3,153	1.4	2,722	1.5	2,460	0.3
기타	5,308	1.9	2,294	1.0	107	0.1	131	0.0
계	280,861	100	225,344	100	183,977	100	170,591	100

	'80		전 출 지		'90		'91	
		%	'85	%		%		%
서울	44,197	19.2	41,464	19.6	34,978	15.9	29,020	3.7
대구	—	—	9,576	4.5	9,085	4.1	8,446	1.1
인천	—	—	4,362	2.1	5,339	2.4	4,858	0.6
광주	—	—	—	—	2,815	1.3	2,710	0.3
대전	—	—	—	—	3,308	1.5	3,262	0.4
경기	14,026	6.1	14,248	6.7	17,246	7.8	16,648	2.1
강원	7,019	3.1	5,604	2.6	4,178	1.9	3,732	0.5
충북	4,156	1.8	3,468	1.6	3,041	1.4	3,212	0.4
충남	5,827	2.5	6,087	2.9	2,909	1.3	2,826	0.4
전북	7,762	3.4	4,773	2.3	3,924	1.8	3,588	0.5
전남	19,130	8.3	16,248	7.7	11,530	5.2	9,872	1.3
경북	36,580	15.9	20,415	9.6	17,077	7.8	15,997	2.1
경남	88,337	38.5	82,913	39.1	100,794	45.8	98,775	12.7
제주	2,663	1.2	2,731	1.3	3,613	1.6	3,173	0.4
기타	—	—	—	—	1,246	0.2	1,095	0.1
계	229,697	100	211,889	100	219,837	100	206,139	100

자료: 부산통계연보, 각년도, 부산시.

3. 勞動力 流動(turn over)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노동력 유동율(turnover rate)을 이용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부산지역의 연평균이직율과 전국평균이직율을 비교한 것이 (표 5)이다. 표에는 부산지역의 대표적 산업인 신발산업과 봉제산업의 이직율이 포함되어 있다.

〈표 5〉 제조업 이직율 비교

(단위: %)

	부 산			전 국
	제조업	신 발	봉 제	
1985	6.7	-	-	4.5
86	6.9	-	-	4.2
87	5.5	-	-	4.3
88	4.4	4.6	4.6	4.5
89	4.2	5.4	3.2	3.8
90	7.4	9.3	4.9	3.8
91	5.5	5.5	3.3	3.9
92.8	5.1	5.1	4.5	-
9	-	9.9	4.7	-
10	-	8.6	5.9	-

자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경제동향, 각월호.

먼저 부산제조업의 이직율이 전국평균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서 부산의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안정적임을 나타낸다. 업종별로 볼 때에 가장 대표적인 신발산업의 이직율이 부산제조업평균보다 높아서 이 산업에 대한 노동공급이 더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월별 추세에서도 가장 최근의 신발산업은 더욱 불안정적인 상태임을 나타낸다.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인 의복의 경우는 이직율이 부산제조업 평균보다 낮는데 아마도 한계적인 정리가 그동안 많이 진척된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부산지역 신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이직자의 특성을 추출해보면 비숙련, 저연령의 여성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산의 특성이 전국평균과 다른 점은 성별 구분인데 신발산업의 특수성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⁸⁾ 移動時의 대상처는 같은 업종내가 절대다수이고 제조업내의 직장과 다른산업이 같은 비율이어서 흥미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위에 나타나는 분석에서도 재확인되는데 채용시에 신규노동자보다 타직장 경험자의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표 6 참조).

〈표 6〉 신발산업의 노동이직율-1991년

(단위: 個社, %)

구분	남	여	유경험 숙련자	비숙련	25세 이하	25세 이상	동일 산업	제조업 타부분	3차 산업	기타
기업	23	49	27	43	62	10	43	13	13	2
비중%	31.9	68.1	37.5	59.7	86.1	13.9	59.7	18.1	18.1	2.8

자료: 임 정덕, 아시아 NIEs의 기업노동전략조사, 1992. 9.

다른 이유로는 신발산업내의 호봉승급제도가 일반적으로 없고 선불제도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결과를 해석하면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노동자유동비율은 높은데 젊은 비숙련여성노동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상당수가 다른 신발기업으로 옮기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4. 임금 및 부가가치수준

지역노동시장의 공급조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수준이다. 부산지역의 임금수준은 전국 시도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⁹⁾ 그 이유는 부산이 전국 시도 가운데서 2차산업(제조업)비중이 가장 높고 제조업의 임금수준이 전 산업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은 제조업중에서도 가장 저임금산업인 신발과 섬유의복산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역노동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노동력공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하리라는 것과 지역내의 노동이동도 제조업으로부터 타산업으로 계속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같은 조건이라면 평균적인 근로자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을 선호할 것이며 임금도 높은 업종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임금체계가 근본적으로 잘못 구성되었다는 것이 이 분석에 의해서 입증되며 앞으로의 방향은 제조업의 기술이 보다 노동절약적으로 되면서 동시에 제조업의 임금수

8) 어 수봉(1992) 참조.

9) 상세한 설명과 자료는 임정덕, “신산업정책과 구산업구조”, 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세미나, 1991 참조.

준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의 논의가 타당하다면 경쟁력이 저하된 산업의 구조조정 방향은 현재의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로 전환하거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퇴출을 유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나 업종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일인당부가가치가 높아야 기업의 지불능력이 반드시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인당부가가치의 수준이 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임금상승 기초하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규개발제품이거나 성장기에 있는 제품이 초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 7〉 업종별 종업원 일인당 부가가치 비교 (단위: 천원, 位)

구 분	1990		1987	
	부가가치	순위	부가가치	순위
311-2 식료품	23,480	15	13,319	14
321 섬유	13,555	25	9,985	22
322 의복	10,098	26	6,062	26
324 신발	14,311	24	7,067	25
332 가구및 장치물	15,517	23	7,700	24
341 종이,인쇄,출판	24,504	14	16,004	8
351 산업용 화학	56,176	2	33,705	2
3522 의약품	49,609	3	30,192	3
3551 타이어 및 튜브	33,874	5	26,134	5
362 유리및 유리제품	27,199	7	15,026	10
3692 시멘트,석회,프라스틱	80,266	1	46,462	1
371 철강	49,266	4	29,682	4
372 비철금속	25,740	10	17,819	7
381 조립금속제품	20,180	19	11,333	20
3821 기관및 터빈	15,656	22	12,825	16
3823 금속공작및 목공기계	18,773	20	10,805	21
3824 특수산업용 기계	25,399	12	12,225	17
3825 사무용 기기	27,054	8	15,622	9
3831 산업용 전기기기	20,629	18	12,970	15
3832 음향, 영상, 통신기기	23,025	16	14,557	11
3833 가정용 전기기기	24,758	13	14,274	12
3834 전자관및 전자부품	25,715	11	11,726	18
3841 선박전조및 수선	26,339	9	14,171	13
3842 자동차	21,318	17	11,513	19
3843 자동차부품	31,225	6	19,270	6
385 정밀기기	17,753	21	9,635	23

자료: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7〉은 주요산업의 일인당부가가치액수와 순위의 변동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논리를 적용하여 부산의 산업을 비교, 분석하여 보면 비교된 26개 산업중에서 신발은 24위이며, 봉제는 26위, 섬유는 25위의 낮은 상태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요증가는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수요의 감소가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가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자본집약적인 산업간의 차이를 나타내며 노동시장이 타이트(tight)해 질 때 어느 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비교해준다.

V. 釜山의 신발産業을 경우로 한 實證分析

지금까지는 지역산업구조의 변화요인으로서의 지역노동시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節에서는 부산의 주종산업인 신발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인 신발산업내의 개별 기업들이 제품수요의 변화와 요소시장조건 변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어떤 변화가 해당산업과 지역경제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신발산업이 부산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단히 설명하고 앞의 이론적 고찰에서 제시한 틀에 의해서 기업들의 현실적 대응과 지역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신발産業과 釜山地域經濟

산업구조에서 지금까지의 중심은 제조업이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91년 현재 부산의 제조업 취업자구성비는 37.3%로 전국의 26.9%보다 월등히 높으며 1970년 중반 이후 구성비가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종산업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부산의 제조업은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신발과 봉제, 섬유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신발과 봉제의 두 산업은 부산제조업중에서 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수출액의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9). 특히 종업원수와 수출액의 경우에는 두가지 품목이 전체의 1/2을 넘어 2/3 가까이까지 이르는 비중을 가지기 때문에 부산이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인 산업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표현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섬유, 봉제산업은 80년대초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산업의 비중이 지역경제에서 낮아져 있다. 신발산업의 경우에는 그 시기가 미

〈표 8〉 전국 및 부산의 산업구조

	附加價値						雇 傭						
	전 국			부 산			전 국			부 산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965	42.9	13.1	44.0	4.7	40.5	54.8	1965	58.0	10.3	31.0	5.1	7.6	87.3
1970	28.7	16.3	54.9	3.5	41.6	54.9	1970	50.4	14.3	35.2	3.7	37.3	59.0
1975	24.2	23.5	52.3	2.4	45.6	52.0	1975	45.9	19.1	35.0	3.5	27.5	69.0
1980	15.1	22.0	52.9	3.0	35.5	61.5	1980	34.0	22.6	43.4	4.8	40.4	54.8
1985	12.8	31.3	55.9	2.8	31.5	65.6	1985	24.9	24.5	50.6	4.0	38.4	57.6
1989	10.2	31.9	57.9	1989	19.5	28.2	27.6	2.7	38.9	58.4			

자료: 경제기획원, 부산시.

루어져 본격적인 조정이 90년초부터 시작되고 있으므로 산업의 비중이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높다.¹⁰⁾ 따라서 신발산업의 부진이나 침체가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고 구조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표 9〉 釜山地域의 主宗産業 現況

(단위: 個社, 명, 백만원, 백만달러)

순위	산업	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수출액
1.	신발	882(13.1)	136,470(37.5)	3,094,154(23.0)	3,076(41.8)
2.	섬유	1,299(18.2)	79,451(21.8)	2,327,355(17.3)	1,559(21.2)
3.	철강	157(2.3)	10,816(3.0)	1,354,297(10.1)	548(7.5)
4.	조선	187(2.8)	8,154(2.2)	372,029(2.8)	45(0.6)
소계		2,525(36.4)	234,891(64.5)	6,637,390(53.2)	5,228(71.1)

자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제조업체 현황, 1991.

주1): 1990. 12월 말 기준임.

주2): ()는 부산지역 전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표 10〉 부산,경남지역 신발산업 현황

(단위: 개사, 개, 천명, 백만달러)

구 분	업체수	라인수	종업원수	수출액
전 체	302	661	135	4,307
부산경남지역	234	545	117	3,808
비 중	77.5	82.4	86.8	88.4

자료: 한국신발산업협회, 1990년말 기준임.

10) 신발산업의 침체이유에 대해서는 Lim(1993) 참조.

신발산업이 부산의 주종산업일 뿐만 아니라 신발산업은 전국적으로도 부산지역에 집중된 산업이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체수, 생산시설(라인수), 종업원수, 수출액의 모든 면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신발산업은 부산의 신발산업으로 바꾸어 부르더라도 무리가 없으며 신발산업이 부산지역 산업구조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발산업을 대표적인 경우로 하여 지역 및 산업통계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아시아 NICs(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산업구조조정과정을 비교연구하기 위해 미국 동서센터의 주관하에 조직된 연구팀이 작성한 표준설문지로 조사된 것이다. 아시아 NICs의 비교분석결과는 별도로 보고될 예정이다. 부산지역의 신발업체 조사는 15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그 중 72개의 유효응답을 최종적으로 이용하였다. 조사는 1992년 7월과 8월에 걸쳐서 수행되었다.

2. 産業 및 企業의 對應

1) 産業의 效率化

省力化는 두가지 이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진행된다. 첫째는 노동공급의 절대적 부족으로 현재의 조건으로는 공급자체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현재의 생산성하에서 임금수준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1) 신규노동력 공급의 부족

앞서 설명한 대로 부산의 노동력 공급규모가 증가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전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제조업 노동력공급의 주요대상지역이었던 경남북, 전남북에서의 전입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또한 부산지역에 특수한 저연령층 미혼여성의 공급이 고갈됨으로 말미암아 전체적 규모 뿐만 아니라 지역특수적인 공급규모가 축소되었다.¹¹⁾ 일반적인 추측대로 부족한 생산인력이 기혼여성의 노동참가에 의해 상당부분 보충될 것이라는 가설은 신발산업의 경우에는 맞지 않고 있다. 1991년의 생산직여성노동자의 비율이 37.7%인데 89년 비율은 41.2%이다. 취업자수는 다 같이 줄고 있으나 기혼여성취업자는 2년동안에 더 많이 감소한 것이다.

11) 상세한 내용은 임정덕(1991. A) 참조.

〈표 11〉 주요 업종별 인력부족율

(단위: %)

직종	신발	섬유	전기전자	기계	건설
생산기능직	38.1	16.4	20.2	14.4	36.0
단순노무직	25.0	8.4	8.9	9.9	25.5
사무관리직	-	3.7	3.0	2.4	2.3
연구기술직	-	3.4	8.0	8.2	14.4
판매영업직	1.4	9.8	4.7	27.4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인력부족실태조사, 1991. 9. 18.

이상에서 밝혀진 바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는 노동력부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로서 〈표 11〉에서 나타난 업종별 인력부족율이 있으며 신발산업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실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동안에 신규로 고용한 연령분포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이상 많고 기혼의 비율이 미혼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 57.7%) 1992년 82.0%) 19세 이하의 저연령층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채용시에도 노동시장에 최초로 참가하는 신규노동자보다 다른 직장에서의 경험을 가진 전직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신발산업에 새로이 공급될 수 있는 노동력은 저연령층이 아닌 다른 경험을 가진 기혼여성일 것이라는 것이다.

(2) 임금

임금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고 산업세분류별 임금에 대한 자료도 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고임금이나 높은 임금상승율을 논하고 있으나 생산성향상과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임금정보는 제한되어 있다. 신발협회와 상공부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해 보면 신발산업의 제조원가중 노무비비중은 1986년의 19.3%에서 1990년의 31.7%로 상승하였으며 이 수치는 실사자료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다. 조사대상업체의 40%가 30~39% 사이의 제조원가중 노무비를, 28%가 20~29% 사이의 노무비로 응답하였다. 제조업중분류에 의한 임금상승율은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 74.0%이었다. 같은 기간동안에 산업분류에 의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50.1% 증가하였고 소비자물가는 22.9% 증가하였다(KLI노동통계, 1992년). 기업체실사에서는 65%가 급격한 상승, 나머지가 완만한 상승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신발산업에서의 높은 임금수준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 다른 측면에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신발산업도 한국노동시장내에 존재하므로 추세의 변화에 같이 움직일 수 밖에 없으며 신발산업만이 다른산업에 비해 임금상승율이 유의적으로 높다는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은 수출단가의 낮은 상승율에 있다.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 혁제운동화의 평균수출단가가 47.6% 밖에 상승하지 않았으므로(신발협회 자료) 그 차이만큼 국제가격경쟁력 또는 신발산업의 수지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의 여건변화에 대해 기업의 대응은 省力化, 高附加價値化이며 企業立地의 變更 등의 노력 혹은 퇴출로 나타나게 된다.

(3) 자동화

신발산업의 공정특성상 자동화는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¹²⁾ 1991년 현재 생산성을 감안한 자동화율은 6.9%이며 시설자체로는 2.3%의 자동화율에 불과하다.

설문조사를 통해서서는 유효응답의 38%가 자동화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나 나머지 62%는 부적합하므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미 자동화되어 있는 시설 중 제일 많은 부분이 컴퓨터미싱이었다. 자동화기술의 도입선은 국내와 일본이 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유럽(대부분 도이치)과 미국이었다.

(4) 생산방식의 변경

省力化의 한가지 수단은 자체보유인원을 줄이고 하청등에 의해 생산방식을 변경하거나 회사내부의 업무를 외부에 위임하는 것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도 이 범주에서 생각할 수 있다.

기업체실사를 통한 결과는 63%의 업체가 하청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청은 주로 부품조달이었다. 부품생산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하청계약을 맺지 않은 기업은 47개 중 2개이었다. 하청을 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노동력부족(38%)이며 다음이 수요의 변동(18%)과 관련비용절감(14%) 순이었다. 총생산비중에서 하청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0~20%가 가장 높았다(37%). 통계적 결과를 요약하면 제품생산의 특성상 하청관계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비용절감과 변화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헤징(hedging)적인 역할로도 사용된다.

임시고 및 일용고를 이용하는 기업은 30% 정도 이었는데 이런 노동력의 대부분을 비숙련부문에 사용하며(81%), 임시고나 일용고를 이용하는 이유는 노동력부족(37%)때문이고, 낮은 노동비용(24%)이나 수요변동(18%)은 2, 3위이다. 시간제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력 수요측면 보다는 노동력 공급측면에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7%이며 낮은 임금과 인기없는 작업 때문에 고용하고 있다고(각 40%) 이유를 밝히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조건은 연수생(33%), 계약노동(175), 무응답(50%)이었으며 출신지역은 아시아가 50%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12) 상공부, 신발산업합리화업종지정 및 합리화 계획안 자료

를 고용하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25%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법적, 제도적 요인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현재의 노동력을 유지하는 계획은 54%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64%) 및 더 나은 작업조건(31%)이 중요한 두가지 수단이다. 주식공유와 이익공유계획은(3%) 뿐이다. 노동력유지전략과 관계가 있는 교육 혹은 훈련계획은 54%가 가지고 있으며 사내훈련(74%)이 대다수이고 외부교육(15%), 교육비용지원(10%)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5) 기술개발

省力化와 동시에 高附加價値化를 이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기술개발이다. 신기술의 도입여부, 연구개발투자 등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조사대상업체의 2/3가 최근 2년동안에 신기술을 도입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경쟁력약화에 대한 원인으로 기술개발이 부각되지 않는 것과 이 부분은 맥을 같이 한다. 도입된 신기술은 생산부문(50%)과 디자인부문(25%)에 주로 사용되었고 품질관리(13%)에도 사용되었다. 신기술은 국내에서 개발(50%)되었거나 수입(29%)되었으며 회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21%)된 것도 있다.

신기술과 고용 및 업무와의 관련성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신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1/2이 고용감소를 나머지는 고용에 변화가 없거나(42%) 오히려 증가(8%)한 곳도 있다. 신기술이 생산직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업무범위는 감소(58%)가 증가(25%)보다 높아서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고 복잡한 기술지식 및 운전지식도 감소(75%)시켜 생산기술의 특수성을 나타내었다. 신기술은 직종에 대한 수요를 증가(46%)시키기도 하고 감소(54%)시키기도 하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기술의 종류와 대비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의 종류별로 세분해서 업무범위의 증가여부를 보면 생산부문의 기술도입인 경우에는 업무범위가 증가(25%)하는 경우가 있으며 품질관리의 경우에는 범위가 상당히 증가(67%)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기술이나 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 업무의 범위가 줄어든다. 신기술의 도입이 기술지식 및 운전지식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지의 여부를 기술종류별로 세분해 보면 생산부문의 기술도입이 복잡성을 추가(25%)시키며 품질관리도 증가(33%)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복잡성을 감소시키거나 변화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낸다.

신기술을 도입한 이유는 품질개선(21%), 노동비용절감(24%), 생산량증가(18%) 등이며 신제품생산(9%)도 다른 하나의 이유이다. 신기술도입이 직종에 대한 수요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가의 질문에도 앞서의 기술종류세분과는 달리 각 부문에서 직종에 대한 수요변화가 있다는 응답이며 사무계통만 변동이 없다고 예상되는 반응으로 나타난다.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투자비율에서 판매액의 5%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는 기업비율은 21%이며 전혀 없는 경우가 32%이다.

(6) 생산의 효율화 요약

산업 및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개별기업의 반응은 임금의 상승과 노동공급의 애로에 대해서 省力化를 추진하게 된다. 신발산업의 경우에는 기술조건과 투자여력 때문에 자동화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 기술개발은 신제품생산이나 제품다양화 및 생산과정개선(省力化) 양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보다 느린 속도와 범위를 보인다. 그 이유는 OEM방식이라는 주문생산방식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2) 再立地, 域外移轉

(1) 再立地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地價가 낮고 토지효율성이 높으며 노동공급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재구성(restructuring)에 직면한 기업은 再立地(移轉)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체실사에서 13%의 기업이 이전계획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전사유는 현재의 위치가 비공장지역이거나 본사와 공장의 합병 등을 내세우고 대부분이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전은 부산의 변두리지역이거나 공단지역이고 인접지역인 양산과 김해가 있어서 부산경제권역내에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통근사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면때문일 것이다.

(2) 海外投資

적극적인 再立地政策으로는 노동조건이 유리한 해외이전이나 투자가 있다. 단일 품목으로는 신발이 가장 많은 해외투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91년 10월 현재 29개의 업체가 진출해 있고 전체생산능력의 20% 가까이가 해외에 투자되어 있다.(표 12 참조)

〈표 12〉 신발산업의 해외진출현황

(단위: 個社, 個, 천달러)

구분	전체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미국	필리핀	기타	비고
진출업체	29	14	5	2	2	1	5	*부산진출업체: 21개사
비 중	100.0	48.3	17.2	6.9	6.9	3.5	17.2	*투자금액: 전국:38,821 부산:36,720
설치라인	101	70	7	6	4	5	9	
비 중	100.0	69.3	6.9	5.9	4.0	5.0	8.9	

자료: 한국신발협회

주): 91년 10월 현재의 수치임.

기업체실사를 통해 보면 과거 5년내에 약 22%의 기업이 해외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은 부산지역 봉제산업기업의 해외투자비율 9%와 대조된다. 과거 5년동안에 해외투자가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는 88년에서 90년까지의 3년간으로 이 시기에 기업이 자구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투자가 다년간에 걸쳐서 계속된 경우도 상당수 있다. 해외투자가 더 활발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신발협회가 해외투자에 대해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자율규제의 형식을 통해 무제한적인 해외진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투자의 이유를 순서별로 나열해 보면 낮은 임금(40%), 저렴한 생산요소 또는 부품 가격(20%), 적은 노사문제(13%), 값싼 토지가격(10%), 용이한 시장접근도(10%), 환율의 평가절상(5%)의 순이었다. 복수응답을 허용했으므로 이유를 복수로 응답한 경우도 있다. 해외투자의 주대상지는 동남아시아(81%)이며 중국,도미니카, 인도도 있다. 투자규모는 과거 5년동안 평균 3,200천불이다.

향후 3년간 해외투자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35%가 있다고 하여 과거의 진출 업체를 포함하여 더 많은 기업이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既진출의 예와 같이 낮은 노동비용(35%)과 요소비용(24%)이 중요한 이유이다. 앞서 나온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투자현황과 계획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해보면 해외투자의 대부분은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¹³⁾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5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총 16건 중에서 300인 이하가 3건의 소액투자를, 300~1200인 규모의 기업이 3건을, 1200인 이상의 기업이 10건의 대규모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투자계획은 기투자업체중 63%가 향후 3년내에 다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과거 투자실적이 없는 기업들중 15개 업체(전체의 21%)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체가 7개업체(47%)로서 대규모업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구조조정の内容과 범위가 중소기업의 업체에도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요약 및 평가

기업재구성의 적극적인 정책의 하나가 해외이전 및 해외투자이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소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시설을 옮기거나 신규투자를 하는 것이 하나의 불가피한 방법이다. 또한 이것은 다른 나라의 예에 의해서도 증명된 산업재구성의 과정이다. 그런데 이것은 구성의 모순(fallacy of composition)例에 해당하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13) 신발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1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해서 금융이나 세계상의 적용을 하는 업체의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타산업과의 관계때문에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별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외투자를 하면 할 수록 본국에 남아있는 기업의 대외경쟁력은 더 저하되고 종국적으로 본국의 시장마저 투자대상국에 있는 합작기업이나 해당 투자국 기업제품에 의해 잠식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부메랑효과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기업의 이해관계와 산업전체의 이해관계가 단기적으로는 상충되고 진출기업과 비진출기업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다.

3) 規模縮小 및 退出

(1) 企業規模의 縮小

신발산업의 재구성노력으로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업수의 증가와 기업규모의 축소이다. 과거의 부산신발은 대규모고용과 다수라인에 의해 대규모로 운영되었다.

〈표 13〉 신발산업의 從業員規模別 企業數의 變化現況

(단위: 명, 個社)

구분	1983	1984	1986	1988	1990	1991
총계	210	313	471	687	732	791
10명이하	8	13	39	39	35	75
11~20	16	21	54	64	70	106
21~50	43	93	128	230	350	314
51~100	42	69	95	144	75	147
101~200	31	38	57	98	98	63
201~300	19	17	24	24	30	33
301~500	14	24	23	27	25	20
501~1000	18	14	23	30	23	14
1001~2000	9	14	19	19	15	8
2000~5000	4	4	3	6	5	10
5000 이상	6	6	6	6	6	1

자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명람, 1983~1992.

주1): 신발산업은 직물,포대,침구 및 연승,어망,끈,로-프를 제외한 업체현황임.

부산은 전국평균보다 중소기업의 수가 적는데 1989년말 현재 부산에 있는 5,000명 이상 고용의 대기업은 전부 신발공장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대규모의 공장들은 점차 고용규모를 축소하여 1991년말 현재 5천명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한 곳으로 감소되었다.

반면에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명이하에서부터 300명이하를 고용하는 소규모 기업의 비중은 증가하였고 전체적인 업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즉, 1982년에

210개 이던 신발기업수가 1991년에는 791개로 늘어났다. 신발산업의 퇴조와 성숙현상이 두드러진 1988년 이후에도 기업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산업전체의 고용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참가기업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산업의 생산방식이 다품종소량생산으로 바뀌는 것과 팻션화, FMS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

〈표 14〉 신발산업의 從業員規模에 의한 雇傭構造의 變化

(단위: 명)

구분	1982	1984	1986	1988	1990	1991
총계	117,693	129,495	138,419	163,961	164,707	107,977
10명이하	66	100	284	314	291	567
11~20	244	340	837	1,005	1,122	1,618
21~50	1,325	3,486	4,790	8,551	9,354	11,271
51~100	3,225	5,053	6,814	10,467	13,025	10,779
101~200	4,486	5,415	8,515	14,395	14,602	9,158
201~300	5,125	4,048	5,894	6,057	7,599	8,057
301~500	5,465	9,513	9,586	10,984	10,365	7,661
501~1000	12,918	9,860	15,521	21,553	17,263	10,155
1001~2000	11,137	17,268	26,209	26,698	22,148	12,713
2001~5000	13,477	37,461	44,959	17,919	17,998	30,798
5천~1만	26,864	25,497	36,888	33,232	38,153	5,200
1만이상	33,022	34,231	13,000	12,787	12,787	4,716

자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명람, 1983~1992.

이와 같은 경향은 종업원규모에 의한 차이에서 더 두드러진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인 이하 규모가 신발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종업원 비중은 1982년에 12.3%이나 1986년에는 19.6로 또 1991년에는 38.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종업원 전체규모는 1990년을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300인 이하 중에서 50인 이하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가장 빨리 증가하고 신발기업은 대부분 50인 이하의 소규모기업인 것으로 판명된다. 50인 정도의 소규모기업은 부품제조나 특수화제조 등에 특화할 것이다. 성숙산업에 기업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며 기동력있는 소규모로 최신기술이나 시설을 이용하면 경쟁력 있는 기업경영이 가능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앞서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업원 일인당부가가치 비교에서 신발산업의 순위가 상향된 것은 이와 같은 재구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2) 非自發的 退出

비자발적 퇴출은 기업실패로 인한 도산이다. 재구성의 과정으로서 실패한 기업의 산업으로부터의 퇴출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지역경제의 성과와도 관계가

〈표 15〉 신발산업의 3000명 이상 個別企業의 雇傭規模 變化 (단위: 명)

구 분	1982	1984	1986	1988	1990	1991
(주)대봉	850	950	1,842	2,528	3,446	1,705
(주)삼화(금사)	4,115	4,115	4,263	3,841	3,600	2,733
(주)삼화(본사)	5,829	5,586	5,700	6,500	6,062	4,000
(주)세원	1,005	2,720	2,720	3,459	3,800	3,400
(주)진양	8,500	6,798	8,081	3,286	4,698	2,065
(주)태화	11,378	12,587	8,332	7,500	9,300	4,364
(주)풍영	6,120	6,520	6,500	6,389	도산	-
(주)화승실업	-	-	-	-	6,389	3,850
국제상사(주)	21,643	21,643	13,000	12,787	12,787	4,716
대양고무(본사)	2,230	3,770	3,810	4,344	3,700	3,114
대양고무(삼락)	-	-	-	5,842	5,842	510
동양고무산업	6,415	6,593	8,273	7,000	도산	-
화승산업(주)	-	808	792	902	7,000	5,200
소 계	68,085	72,090	63,313	64,378	66,624	35,657
업체 평균인원	6,808	6,553	5,755	5,364	60,56	3,241

자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제조업체 현황, 1983~1992.

**:(주)삼화 1992년 도산.

있으므로 복합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 경우는 기업실패의 비중이나 규모 뿐만 아니라 변화속도도 매우 중요한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1년의 신발산업 폐업업체는 전년에 비해 업체수나 종업원수에 있어서 2배이상 증가하였다. 정부가 신발산업을 합리화업종¹⁴⁾으로 지정하게 된 직접적 원인도 이와 같은 급속한 폐업증가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지역 경제통계와 기업체실사를 통해 그와 같이 도산현황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企業현황표에 의한 측정

부산상공회의소가 매년 조사하고 있는 부산지역 제조업체현황을 통해 작성한 규모별 퇴출현황을 정리해 보면 〈표 16〉와 같다. 이 표는 산업중분류에 의한 것이나 신발산업은 중분류 32번에서 가죽신발을, 중분류 35번에서 고무제품의 업체수와 종업원수를 추출하여 작성¹⁵⁾한 것이므로 대체로 신발산업의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 생각된다. 분석에서 사용한 퇴출율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4) 산업합리화업종 지정에 관한 이유는 Lim(1993, A)

내용은 상공부의 신발산업합리화업종 지정 및 합리화계획(1992) 참조.

15) 부산상공회의소의 산업분류와 특징으로서 운동화제품의 중분류 35번에 포함시킨 관계로 본 연구에서도 자료이용의 편의상 동일한 분류방법을 사용하였다.

*퇴출율

$$=(\text{기준년도의 기업체수}-\text{비교년도의 기업체수})/\text{기준년도의 기업체수}$$

신발산업의 경우 60년 이전에 설립된 업체는 그 수가 10년동안 절반으로 42.9%의 감소를 보이고 특히 84년에서 86년사이에 급격히 감소했으나 종업원수로 보면 86년에 급격히 증가하여 약 42.7%의 증가율을 보인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 업체수는 증가하지만 종업원수는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60년 이전에 설립된 업체는 조사시점 82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42개사에서 90년도를 기준으로 24개사로 감소하여 약 42.4%의 퇴출율을 보이고 60년대에 설립된 업체는 85개사에서 37개사로 감소하여 약 56.5%의 퇴출율을 보인다. 70년대에 설립된 업체는 616개사에서 시점 90년도에 261개사로 업체수로 355개사가 감소하여 57.6%의 퇴출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81~84년도에 설립된 업체는 조사시점 84년을 기준으로 162개사에서 90년도에 205개사로 다소 증가했으나 시점 86년도에 654개사로 증가하고 88년도에는 245개사로 급속한 퇴출경향을 보인다. 특수한 경우이지만 조사시점 86년도와 88년도만을 두고 보면 급속한 진입을 볼 수 있으나 시점 90년도에는 급속한 퇴출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에

<표 16> 신발산업의 設立年度別 退出現況

(단위: 명, 個社)

구 분		1982	1984	1986	1988	1990
총 계	사업체수	743	713	1,134	1,347	1,590
	종업원수	140,083	119,283	170,207	188,662	151,188
	평균인원	108	167	150	140	95
'60이전	사업체수	42	40	26	26	24
	종업원수	46,383	53,722	50,135	48,299	30,105
'61~'70	사업체수	85	61	57	47	37
	종업원수	20,423	13,397	18,111	13,941	15,345
'71~'80	사업체수	616	450	397	298	261
	종업원수	73,277	37,234	45,508	29,918	23,197
'81~'84	사업체수	162	654	245	205	
	종업원수	14,930	56,453	42,531	25,000	
'85~'88	사업체수	-	-	-	731	568
	종업원수	-	-	-	53,973	36,107
'89~'90	사업체수	-	-	-	-	495
	종업원수	-	-	-	-	21,389

자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제조업체 현황, 1983-1991.

주 1): 고무제품 및 가죽신발 산업의 수치임

의한 特需에 따른 경기불의 영향이외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고 80년대 중반이후에 신발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통계가 바로 시점별로 본 퇴출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종업원수의 감소경향은 신발업체의 도산 및 라인수의 감소로 기인한 것과 대규모업체들의 규모축소에 의한 감량경영의 경향을, 업체수의 증가경향은 주로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진입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현상이 89~90년 사이에 보여지는데 업체수는 85~88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종업원수는 거의 2배정도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신발산업의 신설법인이 89~91년 평균치로 전체조업에서 10% 정도로 나타나므로 업체수변화는 논외로 한다 할지라도 종업원수의 급격한 감소는 최근의 신발산업의 동향과 같은 맥으로 생각된다. 특히 업체당 평균종업원수의 감소경향은 주로 대규모업체들의 도산으로 인한 퇴출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예전의 규모의 경제에 의한 대량생산방식보다는 소규모기업군에 의한 생산과 소규모부품회사들의 진입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은 신발산업의 자동화율이 약 6% 정도임을 감안할 때 미약하지만 88년 이후 자동화와 관련한 기술진보의 경향으로도 생각되어진다.

반면 60년대와 70년대에 설립된 업체들은 그 수에서 대체로 20~30%의 감소경향을 보이고 종업원수에서도 대체로 같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70년대에 와 두차례의 석유파동이 있었던 것과 함께 이 시기에 미국시장에서의 OMA(Orderly Market Agreement)규제로 인한 신발산업의 환경변화가 심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업체수나 종업원규모의 감소경향은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81-84년 사이에 업체수와 종업원수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아마도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의 영향에 의한 국내외의 特需에 따른 경기불으로 생각된다.

나. 閉業業體에 의한 測定

이와 더불어 최근의 퇴출현황을 보기 위하여 폐업업체현황과 부도율을 보면 <표 17>와 같다.

<표 17> 신발産業의 閉業業體와 不渡率 現況

(단위: 個社, 명, %)

구분	1990		1991		증감율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폐업						
전체조업	362	9,972	382	15,227	5.5	52.7
신발산업	51	2,612	119	8,406	33.3	221.8
비중	14.1	26.2	31.2	55.2		
부도						
전체조업	280(100.0)	-	789(100.0)		181.8	-
신발산업	31(11.1)	-	247(31.3)		696.8	-

자료: 부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부산지점, 1992.

신발산업의 경우 폐업업체수는 90년 51개사에서 91년 119개사로 133.3%나 증가하였고 종업원수로 보면 2,612명에서 8,406명으로 221.8%의 증가율을 보인다. 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신발산업의 비중이 업체수에서 31.2%, 고용자수에서 55.2%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부도율의 비중이 11.1%에서 31.3%로 3배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신발산업이 상당한 침체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실례로써 1992년 3월에 있는 신발산업 합리화업종지정은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주며 신발산업의 연쇄도산의 영향으로 인한 부산지역경제의 어려운 국면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다. 기업 Survey에 의한 測定

그런데 92년 7월부터 9월에 걸친 2개월간의 기업실사를 한 결과 상당히 높은 비율의 퇴출이 나타나고 전술한 바와 같은 경향을 잘 설명해준다. 그 결과는 <표 18>와 같다. 이 실사자료는 1991년도 부산상공명람에 수록되어 있는 전 업체수를 종업원규모와 기업체수간의 차지하는 상호비율을 계산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18> 신발産業의 Survey를 통해 본 退出現況

(단위: 個社, %)

구분	총계	선정업체수	가동업체수	휴,폐업체수	퇴출율
신발산업	722	128	72	56	43.7

자료: 임 정덕, 아시아 NIEs의 기업전략조사, 1992. 8.

총 722개업체중 128개업체를 선정하여 조사해 본 결과 92년 9월 현재로 가동중인 업체는 총 72개사였고 조업중단을 비롯한 휴업, 폐업업체수가 56개사로 나타나 43.7%의 퇴출율을 보이고 있다. 이 수치는 앞에서 본 91년도의 설립년도별 현황에서 본 퇴출율과 비교해 볼 때 최근에 들어와 특히 높은 퇴출율을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91년 이후 급격한 신발업체의 침체를 말해주고 있다.

(3) 자발적 퇴출

자발적 퇴출은 휴업, 정리, 업종전환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규모축소가 그 전 단계과정일 수 있다. 업종전환계획을 물은 결과 19%의 기업이 업종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희망전환업종은 14개 희망업체중 1개사만이 비슷한 업종을 원하고 나머지 13개사는 다른 업종을 원하고 있다. 업체정리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신발업체가 자발적 퇴출의 가능성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과 소규모기업에 의한 진입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동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勞動市場과의 관계

노동조합은 조사대상업체중 50인이상 기업에는 1992년 7월 현재 모두 설립되어있다. 1992년 7월 현재 노사관계는 대부분 협조적으로부터 보통사이로 응답되었고 노조가 기업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정도에서 약간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때문에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대립적인 관계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표 19〉 생산액 1억원당 고용창출효과

(단위: 명, 억원)

	구 분	신발	섬유	철강	제조업	서비스업*
1991	종업원수	136,470	48,645	10,819	364,196	185,320
	생산액	30,941	23,273	13,543	134,738	17,982
	1억원당고용효과	4.4	2.1	0.8	2.7	10.3
1990	종업원수	159,507	50,236	12,257	405,010	167,522
	생산액	29,189	10,086	11,050	126,813	15,209
	1억원당고용효과	5.5	5.0	1.1	3.2	11.0
고용의 생산탄력성		-2.41	-0.024	-0.52	-2.32	0.583

자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제조업체현황, 1991.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지표, 1992.

주*: 서비스업은 부산경제지표수치이고 그외의 자료는 제조업체현황중 30대 생산제품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임.

신발산업이 부산의 고용창출에 주는 수요측면에서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 〈표 19〉이다. 전산업의 생산액당 고용효과가 줄어드는 가운데 제조업의 비율이 더 감소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율이 더 현저하게 감소한다. 서비스업은 고용효과 자체가 제조업평균이나 개별산업보다 훨씬 클 뿐 만 아니라 고용효과의 규모감소도 제조업에 비해서는 작다. 부산의 신발산업은 제조업전체에서 고용효과가 가장 크며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보다 더 크다. 통계상으로 보아서 섬유산업은 1991년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탄력성(= 고용증가율/생산액증가율)은 신발의 마이너스 효과가 가장 크고 그 때문에 제조업전체의 마이너스효과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이너스부호의 제조업과 플러스부호의 서비스업은 지역산업구조조정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를 예측가능하게 하며 지역고용의 주요수요원이 서비스산업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VI. 要約 및 結論

부산신발산업의 위축은 단기적으로는 부산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산, 부가가치, 고용, 수출 및 기타의 연관효과에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분석결과 나타났다. 장기적인 효과는 구조조정과정의 범위와 내용에 좌우될 것이다.

부산지역노동시장조건이 노동집약적 산업의 대표적인 신발산업의 위축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 연구는 보았다. 물론 그 반대의 영향도 상당히 있겠지만 인과관계는 노동시장의 노동공급조건이 노동수요조건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결론지었다. 부산지역노동시장은 그 절대규모에 있어서 또한 노동력구성에 있어서 전국 또는 다른 지역노동시장과는 다른, 과거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나 제조업 전체에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

개별기업들은 여건변화에 따라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고 여건악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신발기업들이 퇴출하고 있어서 구조조정의 정도가 상당히 강렬한 것이 입증되었다. 구체적인 대응의 방법은 효율화, 이전, 규모축소나 퇴출의 큰 범위하에서 개별적으로 분석되었다. 신발기업들은 省力化, 多樣化, 多角化 등의 방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자동화 등의 기술적 제약조건때문에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기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소규모의 신설기업들이 다품종소량생산 등의 방식으로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기업은 노동조건이 유리한 해외로 이미 진출해 있거나 앞으로 진출을 희망하고 있어서 이것이 구조조정의 가장 큰 수단이 되고 있다. 해외이전은 지역경제 성과와 산업전체의 성과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산업정책으로 조정할 중요한 대상이 된다. 신발업체들의 도산이나 폐업은 1991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1992년 3월부터 신발산업이 향후 3년간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되었다.

본 논문은 신발산업의 부산제조업내에서의 위치와 지역산업내에서의 위치, 개별기업들의 조정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정책방향이나 대책 등은 과정을 분석, 논의하는 가운데서 도출될 수 있고 본 논문에 수록된 참고문헌 뿐 만 아니라 다른 수 많은 논문과 보고서에서 수없이 제기되었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정리하지 않는다. 다만 조사대상기업들이 희망하는 정책내용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노사관계의 개선, 대출에의 접근성개선과 연구개발의 지원의 순서임을 밝히고자 한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부산지역전체 산업구조재편을 염두에 두었을 때의 신발산업의

위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과 지역산업연관효과의 측정 및 산업정책의 범위와 내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인 간여정도를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 등이다.

參 考 文 獻

- KDI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통계자료로 보는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 1992. 12. 대한통계협회, 1991년도 인구가동통계연보,
- 박재운, 부산지역 신발,봉제산업의 구조재편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부산대학교 경제학 석사논문, 1993. 2.
- 박재형 외, 우리나라의 신발산업에 대한 연구 보고, 동남은행, 1991.
- 부산직할시, 제 29 회 부산통계연보, 1990.
- 부산직할시, '91 시정현황, 1991.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제조업체현황, 1990.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제조업체현황, 1991.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지표, 1992.
- 부산상공회의소, 1991년도 부산경제백서, 1992. 8.
- 竇鳳植, '한국신발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산경논집 제 10 집, 동의대학교, 1992. 3.
- 신구범, '기능인력의 이직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이직과정 모형의 검증', 중소기업연구논집 1,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1991.
- 魚秀鳳, '제조업 인력이탈의 원인과 대책', 92분기별 노동동향분석 제 5권 제 3호, 한국노동연구원, 1992. 10.
- 魚秀鳳, '노동시장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1.
- 이효수, '노동공급의 미시분석-노동력특성이 경제활동참가 및 경제활동유형에 미치는 영향분석', 노동경제논집 제 14 권, 한국노동경제학회, 1991.
- 임정덕, '산업구조조정정에 따른 부산지역 취업구조의 변화', 중소기업연구논집 1,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1991.
- 임정덕, 신산업정책과 구산업구조-개방경제하의 부산경제, 국제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1992.
- 정기룡, '부산지역 중소제조업의 기능인력 부족원인에 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논집 1,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1991.
- 한국노동연구원, 1992년 KLI 노동통계-임금교섭을 위한 활용자료, 1992. 2.
- 한국신발산업협회, 월간신발, 제 47~49호, 1992. 11~1993. 1.
- 한국은행, '산업구조조정과 고용안정', 조사연구자료 90-6, 1990.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지역경제연보, 1991. 8.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경제의 현황과 변천모습, 1992. 12.
- 황한식, '부산지역 여성노동자의 노동과정 및 노동지역 노동시장 실태와 당면 과제-신발,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 14 권, 한국노동경제학회, 1991.
- Amsden, A. H.(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Michael Webber(1992), 'Enter the Dragon: Lessons for Australia from NE Asia?', Monash University Development Studies Centre,
- Gordon L. Clark & John McKay(1992), *Objections to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Strategies of Coercion: An Analytical Evaluation of Policies and Practices in Australia and the US*, Monash University.
- Gordon L. Clark(1992 A), *Strategy and Structure: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he Scope and Characteristics of Sunk Costs*, Monash University,
- Gordon L. Clark(1992 B), *Global Interdependence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Western Pacific: Business Linkages and Corporate Governance*, Monash University, 1992.
- Jung Duk Lim(1993 A), *Restructuring of the Footwear Industry and Industrial Adjustment of Pusan Economy*, *Environment and Planning A*, Forthcoming
- Jung Duk Lim(1993 B), 'Urban Growth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the Case of Pusan',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25, 1993.
- 公正取引委員会 事務局編, *経済構造の 変化と 産業組織*: 大蔵省 印刷局, 1992.